바라밀현장

파라다이스 호텔 山寺연수

자기성찰의 소중한 기회 최상의 서비스로 회향

범어사 연수기획 김영만대리

"종교에 상관없이 참선, 108배가 좋았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거나 반성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던 직원들에게는 귀중한 체험이었다고 봅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김영만(37)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인력개발부 대리. 김 대리는 종교가 없다. 그런 그가 불교 신도가 아닌 많은 직원들로부터 듣게 될 원성을 각오하면서까지 템플스테이를 고집한 이유는 딱 하나. 직원 모두에게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연이은 국제 행사로 지친 직원들의 눈빛에서 여유와 생기가 사라졌다고 느낀 김 대리가 생각해 낸 것이 재충전을 위한 자기성찰. 김 대리의 예상은 적중했다. 대다수 직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에서 마음의 평온과 활력을 주는 가장 특별한 체험으로 참선을 꼽았기 때문이다.

"강요하지 않는 가운데 마음으로 느끼게 하는 가르침이 녹아 있는 게 불교의 매력"이라는 김 대리는 "스스로를 정리하고 심성을 가라앉힐 수 있었던 템플스테이 체험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수련회의 의미를 정리했다.

"딱! 딱! 딱!" 죽비소리에 이어 숨소리조차 멈출 듯한 고요가 이어졌다. 깊어가는 가을, 범어사 휴휴정사에 가부좌하고 앉은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사장 강영국) 직원들은 참나를 찾아 떠나는 짧은 여행길에 올랐다.

10월 28~29일 범어사 사찰수련회에 참석한 58명의 직원들은 고요한 산사에서 '일상의 나'를 되돌아보는 특별한 체험을 가졌다. 굵직한 국제 경기가 잇달아 열렸던 올 한 해, 누구보다 바쁜 나날을 보냈던 직원들이 오랜만에 맛보는 여유다.

그러나 평상복을 벗고 회색 법복을 갈아입으며 본격적으로 시작된 수련 프로그램에서는 고요 속에 긴장감이 팽팽했다. 입재식에 이어 쉴새 없이 진행된 프로그램은 온통 낯선 체험들의 연속이다. 합장, 차수, 발우공양, 묵언 등 이름조차 생경한 일정을 하나 둘 체험하면서 조금씩

◇파라다이스 호텔 직원들의 범어사 연수는 자아성찰을 통한 재충전은 물론 불교에 대한 관심 유발의 계기가 되었다. 발우공양중인 모습.

'일상의 나' 되돌아보는 특별체험

부산직원 500명 범어사서 참선·108배

종교 다름 넘어 '내면의 넉넉함' 회복

산사의 고즈넉함과 어울리는 내면의 넉넉함을 찾기 시작했을 때, 어느새 밤 하늘엔 별빛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종교에 상관없이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의 직원이면 누구나 참여해야 하는 범어사 템플스테이는 호텔측이 직원의 자기성찰을 위해 마련한 것. 전 직원 500명을 대상으로 11월 셋째주까지 9차에 걸쳐 진행된다. 참가자들의 다양한 종교에도 불구하고, 종교의식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의 태도는 진지하고 적극적이다.

3차 수련회 때 참가한 천주교 신자 고영주(36)씨는 "절에 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인사법, 발우공양 등을 배우니 불교가 친근하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원성 스님, 적인 스님, 최원석 템플스테이 담당자를 비롯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스님들에게도 계급이 있는지', '모양이 다른 불상이 많은 이유' 등 호기심 어린 문답들이 이어지는 동안 불교에 대한 이들의 이해는 조금씩 깊어갔다.

"언젠가 부처님께 귀의하고 싶었다"는 박봉상(29 재무팀)씨처럼 이번 수련회는 발심의 기회가 되기도 했다. 그는 "템플스테이를 통해 배운 참선, 108배 참회를 통해 일상을 점검하고 나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직접 연잎을 말아 만든 연꽃 컵 등에 촛불을 밝혀 들고 가졌던 탑돌이, 불가에서 전해오는 선무도 배우기, 108배 참회를 통한 자기 반성, 음식의 소중함을 일깨운 발우공양 등 결코 쉽지만은 않았던 1박 2일간의 일정을 마친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의 호텔맨들.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찬 내면의 고요와 행복이 고객들을 향한 보다 나은 서비스로 이어질 때, 1박 2일 짧은 정진은 오래 동안 그 의미를 발할 것이다. 특히 공부해야지 하면서도 일부러 시간을 내지 못했던 직장인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기회였을 것이다.

부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11월-보시의 달

- 깨달음의 첫번째 길
- 더불어 사는 삶
- 누구라도 보시할 것은 있다
- 일상의 보시

깨달음의 첫번째 길

'보시바라밀' 깨달음 향한 출발

조건없이 나누는 무주상보시 최고

"대웅전 기와 불사에 보시하세요." "삼천 불 조성 불사에 보시하세요." 아마도 불자들에게 가장 익숙한 말 가운데 하나가 육바라밀 가운데 첫 번째인 보시일 것이다. 절에 가면 제일 먼저 찾는 대웅전에도 '보시함'이란 것이 있고, 연말 연시면 '누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얼마를 보시했느냐'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너무 익숙하다 보니 본래 뜻을 자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또한 보시다. 앞의 예에서 보듯, 곧 물질적으로 누군가를 돕는 것이 보시라고 생각하는 풍토가 너무 퍼져 있지 않나 싶다. 물론 그것도 엄연히 보시임에도 틀림없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면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보시행을 펼치는 불자들이 많다.

군장병 불자들을 위해 '차 한잔 나누기 캠페인'을 벌여 보시하는 불자도 있고, 무료 세무 상담이나 의료 서비스 등 자신의 전문 직업을 살린 봉사도 보시이다. 사찰에 큰 법회나 행사가 있을 때 돕는 것도 보시이고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경전 한 구절을 읽어주는 것, 심지어 사찰 마당에 떨어진 휴지를 줍는 것도 보시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위해' 보시한다고 생각한다.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에 묶여서 하기도 하고, 이름을 써서 '내가 했다'고 확인하고 싶어한다. 보시를 했으니 조만간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은연중 기대하기도 한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경전에서 보시의 의미와 공덕을 설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의 보시이든 다른 사람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무주상(無住相) 보시'를 최고의 보시라고 권하고 있다. 〈반야경〉에서 "수보리야, 보살은 응당 이와 같이 보시하여 상(相)에 집착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보살이 상에 집착함이 없이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큰 까닭이다"고 한 것이나, 〈대품반야경〉에서 "보시할 때에는 자기를 붙잡지 않고, 받은 이를 붙잡지 않고, 베푸는 물건을 붙잡지 않으며 또한 과보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고 설한 것은 바로 보시는 집착 없는 마음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보살이 자리이타(自利利他)의 큰 행원을 닦아 마침내 열반에 도달하는 여섯 가지 방법, 즉 육바라밀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재시(財施) 법시(法施) 무외시(無畏施) 등 보시 바라밀이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의 첫 출발이 바로 보시행이라는 의미이다.

권형진 기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보시야말로 불자로서 으뜸가는 실천덕목이다.

心 마음비추기

산란한 마음 다스리는 입시기도

매년 이맘때가 되면 어김없이 치르는 것이 대학 수능 시험이다. 수험생은 말할 것도 없고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들 역시 신경이 곤두서 있다. 어디 붙잡을 곳이 된다면 검불이라도 붙들고 늘어지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이 때문에 절이고 교회고 점집이고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발길이 어느 때보다 분주하다.

얼마 전 몇 사람과 함께 가을 성지순례를 남해 보리암으로 갔다. 이 곳 또한 항상 참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지만 입시가 가까운 탓인지 유독 붐볐다. 이 곳 보리암은 알려진 대로 낙산의 홍련암, 강화의 보문사, 여수의 향일암과 더불어 손꼽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관음 기도 도량이다.

그러고 보니 관음 성지마다 모두 바다를 끼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끌었다. 관세음보살의 형상이나 그 분을 모신 법당이 다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경전에 관세음보살을 두고 바닷가 홀로 솟은 보타락가산의 도량교주라 했던가. 함께 간 일행들에게 왜 관세음보살은 꼭 바다를 보고 계시느냐고 물었다.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데 거사님 한분이 '마음 아닙니까?' 하고 대답을 했다. 불교 집안에 들어오면 홍수처럼 듣는 말이 마음이다. 알고 하는 대답인지 모르고 하는 대답인지는 몰라도 맞는 말이다.

바다는 불교에서 중생의 고통 받는 마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을 상징하기도 한다. 중생의 괴로운 마음은 고해(苦海)가 되고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은 각해(覺海)가 된다.

관세음보살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살펴보시고 고해 중생을 각해로 인도한다. 그야말로 관자재보살이다. 따라서 관세음보살의 입장에서 보면 고해와 각해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중생의 고통스러운 마음 바다가 곧 부처의 깨달음 바다여서 별개의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보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입을 떼지 않고 무언의 설법을 한다.

"그대들이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 입시문제는 내가 그대들의 자녀를 대학에 붙여 주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저 바다를 이렇게 항상 바라보고 있듯 그대 역시 마음의 바다를 항상 들여켜 관찰해 보라. 그러면 나에게 매달리고 구하는 그 괴로운 마음 바다가 마치 바람이 쉬면 물결이 자듯 안락해질 것이요, 그 곳에서 부처의 깨달은 마음 바다가 나타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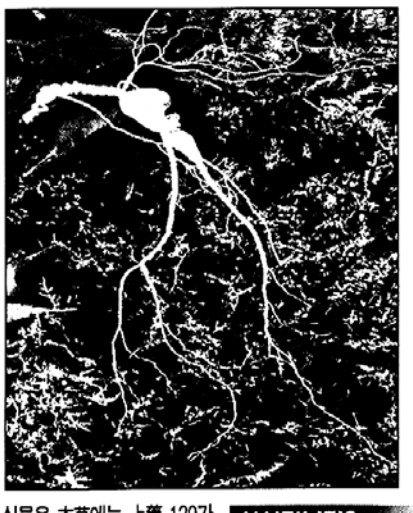
입시 기도를 성취해달라고 매달리는 저 불자들이 관세음보살의 이 같은 설법을 들었을까 모르지만, 형상에 집착하여 관세음보살께 매달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무형의 관세음보살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세워서 염불하는 그 음성과 함께 입시를 향해 치닫는 마음을 쉬고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고 함께 참배를 했다.

寂然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음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결합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3학년도 전기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불교대학원(야간) ☎ 2260-3097~8

- 모집과정 : 석사학위과정
- 모집학과 및 전공
  - 불교학과 불교학, 선학
  - 불교사학과 불교사
  - 불교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 장례문화학과 장례문화
- 원서교부 및 접수 : 2002. 11. 4(월)~11. 15(금) 10:00~17:00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전형일시 및 장소 : 2002. 11. 21(목) 13:00, 본대학원
- 홈페이지 : http://home.dongguk.ac.kr/~gsbs

◆지도자과정◆
- 수강과목 : 석사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을 전공별로 선택하여 수강
- 지원자격 : · 조계종 대덕 법계 품수 승려
  · 각 종단의 간부
  · 각 신행단체의 대표와 간부
  · 신심이 돈독한 불자로서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자
- 전형방법·원서교부·접수기간 : 석사학위과정과 동일
- 전형일시 : 2002. 11. 22(금) 14:00

문화예술대학원(야간)신입생·편입생 ☎ 2260-3606~7

- 모집과정 :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 모집학과 및 전공
  - 문예창작학과 문예창작
  - 공연영상예술학과 공연예술·영화영상예술
  - 불교예술문화학과 불교미술·한국음악·문화재
  - 예술경영학과 공연예술경영·조형예술경영
-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2002. 11. 4(월)~11. 20(수) 10:00~17:00
  원서접수 - 2002. 11. 11(월)~11. 20(수) 10:00~17:00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전형일시 및 장소 : 2002. 11. 23(토) 9:30, 본대학원
- 홈페이지 : http://www.dongguk.edu/sogea

◆문화예술지도자과정◆
- 지원자격 : · 정부 각 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 각 사암 주지급 스님
  · 언론·문화·예술 및 연예인과 유관기관의 임직원
  · 사회지도급 인사와 기업체 임원
  · 유아학원 원장 또는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형일시·방법, 원서교부·접수일시 : 석사학위과정과 동일

불교문화대학원(경주·야간) ☎ (054)770-2394~5

- 모집과정 : 석사학위과정
- 모집학과 및 전공
  - 불교학과 불교학, 선학
  - 불교예술학과 국악, 불교미술
  - 장례문화학과 장례문화
- 원서교부 및 접수 : 2002. 11. 11(월)~11. 21(목) 10:00~17:00
- 전형방법 : 학부성적, 면접 및 구술고사
- 전형일시 및 장소 : 2002. 11. 23(토) 14:00, 본대학원
- 홈페이지 : http://gsbc.dongguk.ac.kr

◆지도자과정◆
- 모집과정 : 불교지도자, 문화예술지도자, 장례문화지도자
- 지원자격 : · 불교계 각 종단 지도자급 임원
  · 국악인, 불교미술, 문화예술 및 장례문화관련 종사자
  · 각 신행단체의 대표와 간부 또는 신심이 돈독한 불자로서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자
  · 기타 공무원, 기업체, 사회단체의 지도급 인사
- 전형일시·방법, 원서교부·접수일시 : 석사학위과정과 동일

사회과학대학원(경주·야간) ☎ (054)770-2093~4

- 모집과정 : 석사학위과정
- 모집학과 및 전공
  - 행정학과 정책개발, 지방자치
  - 경제·경영학과 경제, 경영, 경영정보, 서무관리
  - 국제관계학과 국제관계
  - 법학과 법학
  -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
- 원서교부 및 접수 : 2002. 11. 25(월)~12. 6(금) 10:00~17:00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전형일시 및 장소 : 2002. 12. 7(토) 14:00, 본대학원
- 홈페이지 : http://gsss.dongguk.ac.kr

◆최고경영자과정◆
- 지원자격 : · 기업체의 대표 및 임원, 공무원, 군장교, 사회단체의 대표 및 임원, 사회 지도급 인사,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형일시·방법, 원서교부·접수일시 : 석사학위과정과 동일

www.dongguk.edu